

광주일보 신춘문예출신 흥광석씨 5년의 농촌생활 일기로 풀어나 '아내의 뜨락-속지원 이야기'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 흥광석(왼쪽)씨와 아내 이금숙씨. <사진작가 최옥수씨 제공>

“아내를 위한 귀농, 텃밭에서 행복 배웁니다”

'아내의 텃밭'에는 언제나 꽃이 가득하다. 봄부터 계절별로 피는 꽃은 100여종에 달한다. 지금 보이는 건 사투비와 맨드라미, 꽃무릇, 분꽃. 꽃을 좋아하는 아내는 어느덧 텃밭을 야금야금 잠식해가며 꽃을 심고 있다. 텃밭에는 고구마와 야콘, 감낭콩, 가지 등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다. 교사 출신 소설가 흥광석(63)씨가 풀과 닮으며 꽃밭과 텃밭을 일군 5년간의 일기를 담은 '아내의 뜨락-속지원 이야기'(책가 펴냄)를 출간했다. 3년간 광주 인근의 2만 5000분의 1 지도가 닳도록 땅을 보러다니던 흥씨 부부는 5년전 나주시 남평읍에 300평 남짓 땅을 구입하고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정년퇴임 후에 아내 내려와 살기로 마음 먹은 두 사람은 여름내 집을 지었고, 한달 전쯤 동지를 틀었다. 흥씨가 처음 귀농을 생각한 건 "언제나 고향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많은 신세를

지고, 고생을 시켰던' 아내 이금숙(58)씨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평범한 부부교사였던 두 사람에게 고통의 세월이 시작된 건 1989년이었다. 흥씨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을 당하고 전교조 지부장, 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맡는 등 운동을 하던 세월이 10여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 차에 탔던 동료 교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모습을 본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바로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당시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게 화근이었죠. 그런데 수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늘 시골 생활을 꿈꿔온 제가 먼저 시골 생활을 제안했고, 아내도 동의했죠. 시골에 살면서 집사람은 다시 기운을 차렸고, 지난해부터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학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텃밭을 마련한 후 두 사람은 열심히 농사일을 배웠다. 광주 출신으로 평생 호미라고는 쥐어본 적도 없는 아내는 의외로 농사일에 잘 적응했다. "호미를 쥐고 돌을 끌러내던 아내가 등으로 쓰러지는 햇살이 참 따사롭고 기분 좋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기분이 참 좋아진다는 말도 하구요. 말로는 남편 취미생활 따라한다고 하지만, 본인도 꽃밭이나 텃밭 가꾸기는 재밌는 모양입니다." 흥씨는 '뜨락'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따와 '속지원'이라고 지었다. 추석 후에는 현판도 하나 새겨 걸어둘 생각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희가 6년째 야콘을 재배하는데 제가 직접 만든 묘목을 분양해 드리기도 해요. 농촌의 어려움을 알게 된 것, 나눔이라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게 다 텃밭에 드러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1996년)에 단편 '미망의 감'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등단한 흥씨는 내년 썸생애 첫 소설집을 펴낼 예정이다. 또 동화집과 장편소설도 준비중이다. /김민기기자 mekim@

대촌중앙초 학생들 청학동서 예절학교 체험



대촌중앙초등학교(교장 최병섭)는 최근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예절학교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대촌중앙초등학교 제공>

조선대 15대 서재홍 총장 취임식



조선대학교 제15대 서재홍 총장 취임식 및 제66회 개교 기념식이 27일 오전 해운관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과 원로 동문,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건보공단 광주본부, 영아보호시설 방문 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봉사단(단장 진창언)은 26일 추석을 맞아 광주시 동구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시설을 찾아 아동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코레일 광주본부, 어르신들과 추석음식 나누기



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대수)는 27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사회통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노래자랑, 추석 잔치 음식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전남대병원 개원 102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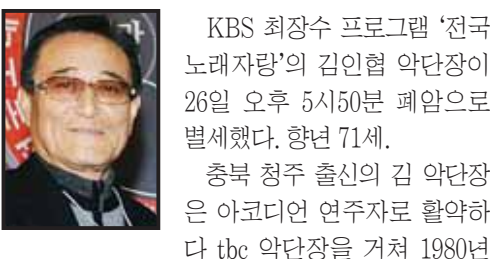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이 26일 4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학홀에서 개원 102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홍보대사에 소설가 조정래씨



순천시는 27일 순천시청에서 소설가 조정래(사진 가운데)씨를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정래 작가는 위촉식후 박람회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도시생활은 지치고 휴식이 없는 삶이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오래도록 시민이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우리 문화를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천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석악가 조수미, 축구선수 기성룡, 축구감독 허딩크, 가수 추가열 등 32명의 인사를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원기자 jyj@

'전국노래자랑' 김인협 악단장 별세



KBS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김인협 악단장이 26일 오후 5시50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충북 청주 출신의 김 악단장은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약하다 tbc 악단장을 거쳐 1980년 방송 통폐합으로 KBS 악단에 합류했다. 김 악단장은 '전국노래자랑'이 첫선을 보인 1980년 11월부터 '전국노래자랑'과 함께했다. 현 MC 송해는 1984년부터 진행을 맡았다. 이후 김 악단장과 송해는 약 30년간 전국을 누비며 '전국노래자랑'의 명품비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싸이 '강남스타일', 빌보드 2위... 다음주엔 1위?

가수 싸이(박재상·35)가 다시 한번 일을 냈다.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2위에 오른 것. 26일(현지 시간) 빌보드 비즈에 따르면 '강남스타일'은 빌보드의 메인 차트인 '핫 100(싱글 차트)'에서 펑크 밴드 마룬파이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부속 차트인 '디지털 송즈(음원 다운로드 순위)'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으며, 라디오 방송 시청 횟수를 토대로 선정하는 '온-디맨드 송즈(On-Demand Songs)' 차트에서도 9위에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아시아 가수가 '빌보드 핫 100' 5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1977년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르가 부른 '아나크'가 5위에 오른 지 35년만이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인이 다 아는 '월드 스타'가 됐지만, 사실 싸이의 가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1년 1월 1집 '싸이 프롬 더 싸이오 월드'로 가요계에 데뷔한 싸이는 코믹한 가사와 춤으로 무장한 타이틀 곡 '새'로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싸이는 2001년 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첫 번째 위



기를 맞았다. 그가 다시 일어난 건 3집 수록곡 '해피엔'이 인기를 끌면서다. 싸이는 3집 수록곡 '낙원', 4집 수록곡 '연애인' 등으로 히트 행진을 이어가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듯했다. 그러나 2007년 병역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그는 다시 한번 고비를 맞게 된다. 산입기능요

원으로 2005년 군 복무를 마쳤지만 부실 근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재입대' 판결을 받은 것. 그는 아내와 갓 태어난 쌍둥이 딸을 두고 2007년 말 현역으로 입대했다. 제대후 2010년 10월 5집 '싸이파이브'를 발표하지만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반전이 시작된 건 지난 7월 6집 파트 1 '싸이육갑(싸이6甲)'을 발표하면서다. 이 앨범 타이틀 곡인 '강남스타일'은 3주 가까이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한 것은 물론,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누리꾼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순식간에 '월드 와이드 히트송'이 됐다. 이 곡은 지난달 26일 미국 아이튠즈의 음원 차트(톱 송즈)에 52위로 첫 진입한 뒤 이달 15일 차트 정상에 등극했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다. 빌보드 차트에서도 연일 기록을 깼다. 26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밴드라는 마룬파이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정상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싸이가 세운 각종 기록은 모두 '한국 최초다'. 전문가들은 싸이가 빌보드·영국(UK) 차트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평다이내스티CC '이웃돕기 한마음'



사계절 푸르른 양산대 골짜기 함평다이내스티CC 차성만 대표와 임직원들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함평군 아동복지 시설인 '시은원'과 '샤론의 집'을 방문, 각각 라면 50박스씩을 전달했다. 또 함평다이내스티CC 임직원들로 구성된 '다사랑 나눔회'는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엔 조손가정 2곳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다사랑 나눔회'는 캐디, 직원, 상용직원 등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로 자신들의 급여에서 매달 1만원씩 기부해 모은 돈과 회원들의 성금 등을 모아 자매결연 2가정에 3년 전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강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정철웅(광주과학기술원 감사)·김병욱씨 아들 원영근 권택관·오미영씨 장녀 정은영=10월 6일(토) 오후 5시30분 서울 하림각(서대문구 부암동).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하준성) 월례회=10월 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사진 모임 '빛고을 사진회' 영호남 교류전 '갯벌(빛고을) 바다(빛들)' = 10월 2일(화)부터 7일(일)까지 대구 동구문화예술회관, 초대 일시 10월 2일(화) 오후 7시. 010-4085-8181(홍순익). ▲신용회복위원회 =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호중금빌딩 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새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 = 노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부)자 지원사업 = 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전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버리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 = 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분. (사)장애인복지회(의료, 법률, 상담지원).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무료자선봉사 =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국단 청춘 퍼블릭 프로그램 회원 = 주부극단 '여배우, 제석업마 금당씨'의 교육일시는 11월 23일(금)까지 매주 월요일 총 20회 진행, 남구문예회관 지하 1층 에어로빅실(15평 내외)·어린이극단 '동네방네 꾸러기'는 11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총 20회 진행 남구문예회관 지하 1층 에어로빅실, 대상 및 인원은 초등학교 2~6학년(15평 내외) 062-430-5257. ▲벽산태권도관장 강경철 = 유

부음
▲권재근씨 별세
▲조두신씨 별세
삼가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 人 祭 日 (80세)
故 人 祭 日 (65세)
故 人 祭 日 (76세)
故 人 祭 日 (41세)